

<하기 글은 2014년 7월 31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무더위도 잊은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의 현장

무더위와 장마, 번덕스런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24일, 주룩주룩 내리는 장맛비에에도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삼성 나노시티에 모여 열띤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화성시를 위한 마음 하나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 삼성전자와 함께 화성시에 행복을 나누으리!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



이번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는 최근 화제의 영상인 김보성의 '의리의 아이들 오디션 현장'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월드비전 홍보대사 김보성이 등장해 나눔의 실천을 권하는 모습을 보고 소통협의회 위원들 모두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해 한 번 더 떠올리고 나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삼성전자 이송백 의장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짧은 소감과 함께 "오늘 삼성전자와 화성시의 상생(相生)을 위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7월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인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회칙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회칙이란,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모임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문서화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난 1기 때 제정되었던 회칙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가될 사항이나 수정될 사항을 논의하여 앞으로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칙을 개정해 나갔습니다.

■ 화성시를 위한 마음 하나면 장마도, 무더위도 끄덕 없습니다!

회칙 개정이 끝나고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지역주민 초청행사는 올해도 각 동 부녀회, 노인회, 6.25 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지역단체를 삼성전자 나노시티로 초청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소통협의회 위원 모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블로그에도 소개 드린 바 있는 '아름 Town 조성을 위한 공평향 벽화 그리기 활동'과 '여름에 아삭아삭 김치 나누기 활동' 등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활동 소식에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진행된 '여름에 아삭아삭 김장봉사활동'에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위원들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김장봉사를 통해 화성시 어려운 2,008가구 이웃이 시원한 김치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는 소식에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나노시티와 환경안전체험관 등을 견학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집 안에만 있기보다 프로그램에 참가 해본다면 여름방학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신뢰를 다져 끈끈하게 하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활동을 통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장마에도, 무더위에도 계속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